

공동체 소식



사순 제1주일
전능하신 하느님,
해마다 거룩한 성사로 사순 시기를 지내는 저희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달아
회개의 삶으로 그 열매를 맺게 하소서.

■ 사순시기 안내

- 사순시기의 의미 : 재의 수요일부터 40일 동안 참회와 극기의 생활로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에 참여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이루는 만남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 사순시기 전례와 기도 : 주일미사 중 '대영광송'을 바치지 않으며, '신앙의 신비어'는 '나'양식으로 바칩니다. 또한 자주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칩니다.
- 공동 십자가의 길 기도 : 사순시기 동안 주일미사 40분 전에 시작합니다..

■ 본당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월정기회

- 일시 : 2/18(주일), 교중미사 후.
- 장소 : 나자렛 교육관

■ 본당 부활 합동판공 고해성사

- 집전시간 : 3/16(금) 저녁시간
- 초청사제 : 오마하 오세완 바오로 신부님

■ 사순 제5주일, 사순 특강

- 미사 : 3/18(주일) 11:00, 미사 중.
- 주례 : 오클라호마 한인성당 박세훈 루이몽플 신부님

■ 캔사스대교구 "Archbishop's Call to Share" 안내

- 내용 : 캔사스 대교구 교구장 주교님의 자선 나눔 모금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 참여방법 : 교구홈페이지 메뉴
- RESPONDING(<https://www.calltoshare.org/>)



■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파 견
금 주 (2/18)	118	513	178	123
차 주 (2/25)	115	212	180	119

■ 전례 봉사자 및 복사

	해설자	제1독서	시중 복사
		제2독서	향 복사
금 주 (2/18)	김대연 요셉	박태주 로마노	차민서 임마누엘
		김명희 리드비나	이원준 요한
차 주 (2/25)	박태주 로마노	전용진 로렌스	문예나 요안나
		조진환 베드로	문호진 안토니오

■ 애찬 봉사자

금 주	김시연, 박정자, 한순례, 김경돌, 이경남
차 주	백문주, 최은미, 김진미, 윤지선

■ 헌금 봉사자

금 주	이내익 베드로, 이우영 가브리엘
차 주	강영진 라파엘, 강승석 도미니코

■ 우리들의 정성

	영성체	헌금	교무금
2/11주일	35명	221 달러	360 달러
(총 1 세대)			

사순 제1주일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2코린 4,18-

2018년 2월 18일

+미사시간
주 일:11:00 AM
화요일: 7:30 PM
수요일: 7:30 PM
목요일:10:00 AM(교육관)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hurch in Kansas City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in@daum.net

회장 이우석 프란치스코
M: 816.616.0033

재무 김병철 베네딕도
M: 913.710.0770



오늘의 전례

오늘은 사순 제1주일입니다. 지극히 자비하신 주 하느님께서 언젠가 우리의 잘못을 참아 주시며, 주님의 계약을 세대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사순 시기에, 우리 모두 마음을 기울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참된 회개로 나아갑시다.

그림 묵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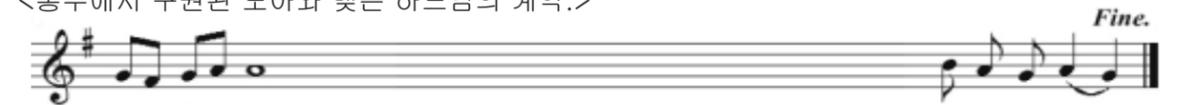
‘회개의 시작인 사순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바위 위에 고독하게 앉아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가 참회하고 속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의 때인 사순절의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시대에 지금 우리가 참으로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림 정미연 소화테레사)

제 1 독서 :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9,8-15

<홍수에서 구원된 노아와 맺은 하느님의 계약.>

화답송 :



◎ 주님, 당신 계약을 지키는 이들에게 당신의 모든 길은 자애와 진실이옵니다.

○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 ◎

○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자애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의 어지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

○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한 이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한 이 당신 길 알게 하신다. ◎

제 2 독서 :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3,18-22

<이제는 세례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복음환호송 :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음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12-15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생명의 말씀

사순, 광야에로의 초대

17세기의 위대한 지성이었던 파스칼은 『팡세』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비참을 위로해 주는 유일한 것은 오락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들의 비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참이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주로 우리 자신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여 모르는 가운데 죽어가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진정한 나를 만나는 과정에서, 우리는 삶의 무료함이 나고통, 그리고 나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죽음의 두려움을 마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을 직면하고 받아들이기란 여간 거북하고 우울한 일이 아니기에, 우리는 이들을 회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일상의 소소한 자극에 눈을 돌립니다. 곧, 갖가지 오락거리에 탐닉하거나 자신의 일에 기계적으로 몰두하며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어, 중요하지만 암울한 이런 주제들로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을 피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주변적인 것들에 몰두하여 삶의 무게를 회피하는 것이 그리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마치 알코올중독자가 자신을 괴롭히는 삶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술에 의존하여 그저 잊어버리고 회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결코 건강한 삶의 자세가 아니듯이 말입니다.

바로 그렇기에, 우리는 때때로 광야에 홀로 서야 합니다. 광야는 메마르고 험벗은 땅입니다. 먼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의 마른 입술을 축여줄 시냇물도, 주린 배를 채워줄 식량도 없고, 긴 여정의 지루함을 달래줄 꽃 한 송이 피어있지 않은 불모의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황량한 광야에서 비로소 사람들은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게 됩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에 시달리며 자신이 얼마나 유혹에 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헛된 교만에서 벗어나 자신의 유한함을 직시하며, 흠에서 와서 흠으로 돌아갈 덧없는 삶의 의미를 곱씹어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광야는, 이렇게 자신의 유한함을 깨달은 인간이 비로소 하느님을 발견하고 그분께 진심으로 돌아서

는 장소입니다. 그렇기에 누군가에게는 그저 고통과 곁핍의 땅인 이 광야가, 누군가에게는 하느님을 직접 뵈옵는 은총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 광야가 꼭 특정한 장소일 필요는 없습니다. 삶의 여정 중 맞이하는 아득한 절망의 순간들,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의 상황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가 아닐까요.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시작하며, 교회는 오늘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이 은총의 시기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광야에 머물도록 초대합니다. 곁핍과 고통의 장소. 세찬 유혹의 시간.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 홀로 버려진 듯한 그 절망의 땅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함께 하는 이 광야의 여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나를 만나고 참 하느님을 뵈울것입니다.

최규하 다니엘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신약성경의 문화 이해

갈릴래아 호수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지명 중에 하나는 갈릴래아입니다. ‘갈릴래아’의 뜻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방인들의 지역’이라는 표현과 관련된 이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열대성 기후에 가까운 이스라엘의 날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갈릴래아 호수는 풍부한 물을 공급할 수 있고 이것은 사람들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갈릴래아 호수는 둘레가 52킬로미터에 이르러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이 40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담수호로 해저 200미터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갈릴래아 호수는 킨네렛(kinneret) 호수로 표현됩니다.(민수 34,11; 여호 13,27) 이 명칭은 호수의 생김새에서 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갈릴래아 호수는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적인 악기인 수금(kinnor)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고 이 악기의 이름에서 유래한 명칭으로 보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역시 갈릴래아 호수는 다양한 명칭으로 불립니다.

루카 5,1에서 호수의 이름은 겐네사렛으로 표현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명칭이 구약성경의 킨네렛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또 요한 6,1에서 갈릴래아 호수는 티베리아스 호수라고도 불립니다. 호수의 서쪽에 위치한 티베리아스는 18년 즈음 새로 생겨난 도시로 현재에도 갈릴래아호수변의 가장 큰 도시입니다.

갈릴래아 호수의 북동쪽에는 골란 고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이 고원에서 거센 바람이 갈릴래아 호수로 불어오기도 하고, 이때에 호수는 풍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복음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배를 타고 가다가 거센 돌풍을 만나는 제자들의 이야기는 이런 지리적인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르 4,35-41 참조)

또 호수의 서쪽에는 넓은 평야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풍부한 물을 가지고 예로부터 이스라엘 안에서 농업이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활동 무대가 주로 갈릴래아 호수와 인근 지역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씨뿌리는 사람의 비유나 겨자씨의 비유 등은 일상적인 삶과 매우가까운 내용들입니다.

갈릴래아 호수와 함께 볼 수 있는 장소는 호수의 북서쪽에 위치한 카파르나움입니다. 구약성경에 이 고을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카파르나움이 기원전 2세기 정도부터 주로 어부들이 정착해서 살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고향으로 생각되는 카파르나움은 ‘예수께서 사시는 고을’(마태 9,1)로도 표현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지만 베드로 사도의 집터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회당의 모습이 남아있습니다.(마르 1,21 참조) 갈릴래아 호수를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은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신 장소이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이기도 합니다.

허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교리상식

교리상식

금육제? 금육재?

금육(육식을 파하는 관습)을 실천하는 것은 그리스도교 초기부터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처음엔 예수님이 돌아가신 성금요일에만 하다가 매주 금요일에 지키게 되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 교회법 보완 규정(2002년 6월 25일 사도좌 승인)에 따르면, 연중 금요일 재는 금육이나 금주, 금연, 선행, 자선, 화생, 가족 기도로 지킬 수 있습니다. 재(齋)를 지키므로 절약한 몫은 자선 사업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교: '교회상식 속풀이' | 바오로딸 발행